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함평군,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

함평군은 휴가철을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군청에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불편신고 접수와 관광지 안내 등 행락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상황실 운영 신속 대처·불편신고 접수

관광지 안내 등 행락객 안전·편의 도모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터미널의 청결과 소화기 비치, 비상유도등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은 타이어 마모상태,

안전벨트 착용여부, 차량 청결 등을 확인하고 운수종사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운전사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대중교통 관리로 함평을 찾는 행락객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환 기자



보성군, 노후교량 보수에 총력

연내 40억원 투입 교량 등 전면 보수·보강 실시

보성군은 행복하고 안전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노후교량 보수에 발 벗고 나섰다.

주요 농어촌도로를 지나는 교량 79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 시설 9개소를 지정했으며,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D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 9개소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포함한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 재가설, 교면 포장 등 보수, 보강 작업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교량 재난위험시설 9개소 중 복내 덕정교, 미력 석호교는 재가설했으며, 특량 비봉교, 복내 임석교,

별교 외추교 등치 유산교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등 6개소 노후교량을 우기철 이전에 정비했다.

별교 영등교 재가설과 조성 쌍다리교 울어 서상교 등 3개소 보수는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00m이상 특정관리교량인 보성육교와 정자교 보수는 법적주기에 따라 정밀점검과 내진 성능평가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교량을 개선하여 각종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군민의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야경 명소로 재탄생

길이 405m 갯벌탐방로 완공·목재 데크·LED 조명 등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함평군 함평을 돌머리해수욕장이 야경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돌머리 연안유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길이 405m에 이르는 갯벌탐방로를 최

근 완공했다.

바닷가로 쪽 뻗은 이 탐방로는 걷기에 용이하도록 목재 데크로 조성했다.

탐방로에서 내려다본 바닷물은 맑고 마음을 가깝게 한다.

물이 빠지면 게, 조개, 해조류가 살아 숨쉬는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며 광활하게 펼쳐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LED 조명을 입혀 밤이면 다양한 색채로 반바다를 수놓는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등 여러 색갈이 시시각각 변하며 화려한 색채

로 행락객들을 유혹한다.

군 관계자는 "돌머리해수욕장에 갯벌탐방로를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돌머리 연안유지개발사업 준공식이 19일 오전 9시40분부터 돌머리해수욕장 수상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김광환 기자

장성군 “‘황룡강 노란꽃잔치’ 함께 할 재능꾼 찾습니다”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26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를 함께 이끌어 갈 재능꾼을 찾는다.

군 관계자는 오는 10월 황룡강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에 참여할 문화공연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를 7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는 '가고싶은 멜로우시티! 걷고 싶은 황룡강!'을 슬로건으로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황룡강 일원에서 가을꽃을 주제로 개최된다.

장성군은 17일간 진행되는 대축제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하는 즐기는 소풍형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문화공연 재능기부자는 노래, 악기연주, 퍼포먼스 연극 다양한 장르에서 모집하며, 군은 이들에게 주무대와 소공연장 등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또한 축제의 주인공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주무대, 운영보조, 전시부스 운영 보조 역할을 맡아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장성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나 장성군청(061-390-7381)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의 뜨거운 참여와 지지로 노란꽃잔치가 대성공을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더욱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준비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노란꽃잔치'가 수십 만 명의 찾는 장성의 대표 축제인 만큼 올해 노란꽃잔치는 더욱 알차게 꾸며진다. 황룡강 일원을 6개의 테마역으로 꾸며 공간별로 황룡강의 가을 이야기를 담은 꽃정원이 조성된다.

테마역은 동화마을역, 문화역, 황룡꽃가람역, 황금미로역, 다운누리역, 온새미로역로 각 역마다 동북체현과 책, 푸드, 체험 등을 주제로 한 정원이 설치되며, 테마역 외에도 힐링허브정원과 노천카페 등이 따로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장성=변영모 기자

고흥군,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

품종·출수기 따라 벼 이삭거름 적기시용



수량 및 미질과 관련이 많으므로 품종별, 묘내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비를 잘 판단해야 하며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이삭페기 25일전, 고품

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이삭페기 15일전에 NK비료 10㏏ 11~12kg 시용이 적당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고 습하여 벌구류 등의 비래량이 많고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병해충 예방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앞으로 "벼 병해충 기본방제 물관리 등 벼농사 후기 관리에 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쓰러짐,

영광군, 모싯대 제조기 시연회 실시

기계가 없어서 예초기를 등에 메고 모싯대 제거작업을 힘들게 해 왔다.

영광군은 2년 전부터 모싯대 제거를 할 수 있는 기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재용공업이라는 제조기 회사와 함께 올 봄부터 연구 노력 끝에 모싯대를 처리할 수 있는 제조기를 제작하여 모싯대 재배농가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하게 되었다.

작업 능률은 1대당 15명 이상 작

업 능률과 예초기 작업보다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모싯대배농가들이 최고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윤혜경)은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모싯대 제조기를 구입하여 모싯대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발농업이 힘든 만큼 발농업 기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광군은 지난 14일에 모싯대 제조기 시연회를 실시하여 모싯대 재배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

혔다. 그동안 모싯대는 섬유질이 아주 강한 식물로 제조작업을 할 수 있는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연변진흥재단